



DIABLO
LORD OF HATRED

악몽의 날개
위에서

로라스

JONATHAN MABERRY

스토리

JONATHAN MABERRY

일러스트

LINDSAY KERNER

편집

MEGAN WALKER

디자인

SOPHIE ERB

아트 디렉션

ALEX CRESWICK

세계관 자문

IAN LANDA-BEAVERS

창작 자문

MATT BURNS, CASSIEL CHADWICK,
CHLOE FRABONI, ZAVEN HAROUTUNIAN,
DAVID LOMELI

프로덕션

HANNAH MATTISON, BRIANNE MESSINA,
TAKAYUKI SHIMBO, JT TORREA, TRACY WANG

번역

BLIZZARD LOCALIZATION



Blizzard.com

© 2026 Blizzard Entertainment, Inc. Blizzard, Blizzard Entertainment 로고는 미국 및/또는 기타 국가에서
Blizzard Entertainment, Inc.의 상표 또는 등록상표입니다.

출간: Blizzard Entertainment.

이 이야기는 픽션입니다. 이름, 인물, 장소, 사건은 작가 또는 아티스트의 상상의 산물이거나 허구적으로 지어낸 것이며,
생사를 불문한 실존 인물, 사업체, 사건 또는 지역과의 유사성은 순전한 우연입니다.

Blizzard Entertainment는 작가 또는 타사 웹사이트 또는 콘텐츠를 관리하지 않으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나, 신탁 여왕의 말을 들어라. 현재와 과거, 미래를 아는 것이 내 몫이니.

꿈은 창문을 닫고 통로를 잠가도 진실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어둠의 세계, 잠든 정신으로 통하는 문이다.

꿈에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희망을 품고, 계락을 꾸미고, 믿음을 얻으며... 모든 난국을 해결하고 자신에 대한 비밀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난다.

오, 우주가 이런 신념에 얼마나 기뻐했던가. 희망의 꿈을 꾸는 자의 선율이 현실에 그 의지를 강요할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허나 진실은 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거미줄 가득한 악몽의 통로 속에서 진실은 찾아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래, 참으로 엄청난 대가가...





로라스

로라스는 결코 상냥하지 않은 밤이 떠미는 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무언가 뒤를 따르고 있음을 알았다.

추적하는 건 아니었다. 그림자의 망토를 두른 그 형체는 그를 따라잡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았다. 대신 그것은 그를 겁먹게 했고, 그래서 로라스는 달아나야만 했다. 미늘창은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걸로는 추적자를 처치할 수 없음을 알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감히 그 무기를 사용할 생각은 하지 못했다.

로라스는 겁쟁이가 아니었다.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살아남았지만, 이건... 이것은... 달랐다.

그래서 그는 며칠이고 잠도 자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달아났다. 그러다 우연히 이 마을을 찾았다. 그는 눈에 띄는 첫 번째 여관에 방을 빌렸다. 철로 묶인 무거운 참나무 문이 있는 여관이었다.

그림자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잠시 동안 그의 희망이 커졌다. 포기한 걸까? 아니면 그건 그저 같은 길을 따라갈 뿐인 평범한 여행자였나? 그는 거짓에 거짓을 날조하여 공포를 오해로 바꿔 보려 했다. 그리고... 그는 좁은 침대의 털가죽 사이로 들어갈 준비를 하다가, 자신의 공포가 아무런 근거도 없었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려고 창문 밖을 훑듯 바라봤다.

그것이 거기 서 있었다. 거리 반대쪽 보도 위, 처마 아래에 형체가 없고 그림자처럼 검은 그것이 있었다. 얼굴도, 피부도, 칼날도 로라스에게 보이지 않았고, 거기엔 오직 어둠만이 존재했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로라스에겐 믿음도, 빛도 없었다. 기도할 대상이 없었다. 그의 말을 들어 줄 성인이 없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무심하고 창백한 달을 바라보며 한 마디 말했다.

“부탁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는 것인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곳에도 마음을 달랠 곳은 없었다. 그가 지금껏 저버린 모든 사람이 잠들지 못하는 그의 앞에 나타났다. 친구들, 아군... 위험과 파멸을 무릅쓰고 그를 믿었던 사람들이 모두 그를 찾아와, 살인자 무리처럼 그를 둘러쌌다. 그들은 칼이 아닌 말로 그를 찔렀고, 아무리 자비를 애원해 봐도 소용이 없었다.

로라스는 언제 무의미한 휴식이 끝났는지 기억하지도 못한 채, 어느새 옷을 입고 다시 밤거리로 나섰다. 정신보다 몸이 먼저 깨어난 것만 같았고, 지각이 돌아왔을 무렵에는 이미 마을 외곽에 도달해서 그 너머 미지의 황야를 바라보고 있었다. 낡은 건물들은 어딘가 이상하게 뒤틀려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건설된 게 아니라 여기서 자라난 것만 같았다. 건물 표면은 공풍이로 뒤덮여 물컹거렸고, 지붕널은 마지막 남은 녹슨 못에 매달려 흔들거렸다. 덧문들은 마치 죽어가는 야수의 폐처럼 광광 열리고 닫히는 걸 반복했다. 위쪽 창문은 몇 개를 빼면 대부분 어두웠고, 빛이 엿보이는 곳에선 모두 온기가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애써 온기를 마련하려 하는 절박한 노란색 빛이 엿보일 뿐이었다.

“도와주세요.” 그는 텅 빈 거리를 향해 중얼거렸다. 그의 말은 작지만 너무 컸고, 너무 무신경하고 거슬렸다. 하늘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고, 그는 그 무심함의 무게에 짓눌렸다. 그는 한때 하늘의 품에서 성장했지만, 이제는 그 하늘도 그의 친구가 아니었다. 그의 형제들인 호라드림은 밤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어둠에 맞서 타오르는 진실과 힘의 핵불이었다. 그들의 불길은 환하게 타올랐고, 그 빛을 받아 호라드림은 지팡이와 두루마리를 높이 쳐들고 성역을 지켰다.

그는 그 불길의 빛이 그리웠다. 그 열기가 그리웠다.

로라스는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그 그림자 생물이 따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부탁이요.” 그는 다시 부탁했다. 어쩌면 밤 그 자체를 향해 애원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서, 그는 그냥 계속 움직였다.

달이 이상하리만치 무겁고, 웬지 형태도 뒤틀린 것만 같았다. 장화 바닥이 모든 자갈과 경계석, 심지어 그림자 끝에도 걸렸다. 그는 바람을 피해 몸을 기울였지만, 어떻게 몸을 비틀어 봐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를 따라오는 것으로부터 냉기가 뿜어져 나오는 듯했다. 냉기가 기병대의 파상 공세처럼 뻗어 나와 그를 추적하고 서리의 칼날로 뱀다.

“날 내버려주세요.” 그는 외쳤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봐도 그 형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다음 그는 말 없이 공포와 절망의 외침을 내지르고, 더 빨리 달리려 했다. 그러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바람은 맹렬하게 울부짖으며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로라스가 이 끔찍한 추위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나와 있었는지도 잊게 만들었다. 문틀이나 기둥을 붙잡고 잠시 멈춰 서서 얼어붙은 폐에

그의 앞에는 불타버린 숲의
잣더미 속에서 구불구불
뒤틀린 살아 있는 나무
하나가 서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방향이 그를
속삭임의 나무로 이끌었다.

온기를 밀어 넣으려 애를 쓰고 있을 때면 그는 정신없이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사람들이 어둠을 뚫고 나타나 그를 지나쳤다. 개중에는 두려운 듯한 눈빛을 던지고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품위를 잃고 몰락한 사람을 만났다는 듯 비웃기도 했다. 낮익은 얼굴도 있었지만, 그는 자기 생각이 옳은 건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다른 호라드림들을 보았지만, 그들에겐 칼날이나 발톱, 주문 등 그들 자신을 죽인 상처의 흉터가 남아 있었다.

이건 무슨 마법일까? 속아서 주문이라도 걸린 걸까?

그는 마을을 등지고 계속 걸어, 언덕 위로 올라가며 힘겹게 어두운 계곡을 지나갔다. 그리고 충격적인 깨달음이 그를 때려, 그는 우뚝 멈춰 서서 비틀거리며 헐떡였다. 눈앞에 있는 것으로 인해 숨조차 제대로 실 수 없었다.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주 멀리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그의 앞에는 불타버린 숲의 잿더미 속에서 구불구불 뒤틀린 살아 있는 나무 하나가 서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방향이 그를 속삭임의 나무로 이끌었다.

그는 움찔했다. “안 돼.” 그는 울부짖었다. “여기 있을 리가 없어. 이렇게 멀리까지 왔을 리가 없어.”

한밤의 바람이 킁킁거리며 그를 스쳐 지나갔다.

로라스는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왜 여기지? 또 왜 지금이지?

릴리트를 처치하러 가는 길을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이 나무에 바치지 않았던가? 그래, 하지만 일은 더 악화되었다.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가 해방되었다. 그토록 많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일은 더 악화되었다.

훨씬, 훨씬 더 악화됐다. 악의 영혼이 이 세계에 만연해 있었으니까. 가능할 수 없는 그 무게가 나무를 향해 천천히 걷는 그를 잡아끌었다.

고개를 돌려 보니 그 그림자 형체는 거기 그대로 있었다. 얼음장 같은 바람에 다 해진 망토를 펄럭이며, 일백 걸음 뒤쪽에 서 있었다.

그것이 날 여기로 이끌었어.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이 끔찍한 장소로 오게 했어. 대체 왜지? 내게 뭘 원하는 거지?

위쪽에서 구름이 갈라지고 달빛이 그가 서 있는 곳으로 흘러내렸다. 로라스는 심장이 차가운 주먹처럼 가슴팍을 두드리는 걸 느꼈다. 현실은 피투성이로 조각나 그의 주위에 널브러졌다. 영원히 고통스러운 형태로 구부러지고 얼어붙어 버린 회색빛 시든 초원 위에 그는 서 있었다. 먹구름 같은 회색 지네들이 잡초들 사이로 고통스러우리만큼 천천히 기어다녔다. 방패처럼 넓은 버섯들이 부풀어 오른 기둥에 비투로 기대어 있었다. 하늘은 갓 멎든 피부의 색이었다.

그의 앞에 선 속삭임의 나무는 관절염이라도 걸린 것처럼 일그러진 가지를 사방으로 뻗었다. 수많은 가지 하나하나에는 호박만큼 커다랗고 둥글며 흥축한 과실이 매달려 있었다.

목소리가 들렸다. “아, 여기 있었군, 늙고 고독한 로라스!”

그는 처음엔 그 목소리가 그림자 추적자에게서 들려온 거라고 예상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과실에서 들려온 목소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게 과실이 아니고, 조롱박도 아니라는 걸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각각의 가지에는 인간의 머리가 매달려 있었다. 그건 피투성이가 되어 죽은 전리품이 아니라, 살아 있는 머리였다. 속삭임의 나무의 일부였다. 그 머리들의 죽은 혀가 말을 했다. 로라스도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니,” 그는 저항했다. “아직 내 시간이 되지 않았소.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매달린 머리들이 잔혹한 웃음으로 그를 조롱했다. 그들의 입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고, 두 눈에서 진홍색 눈물이 흘러내렸다.

“너희 모두는 로라스를 버렸느냐?” 다른 머리가 속삭였다.

세 번째 머리가 그를 조롱했다. “함께 걷는 모두를 저버리는 자를 보아라.”

로라스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그-그건 사-사실이 아니요.” 그는 말을 더듬었다.

“네가 지나간 길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해 보라.” 머리들이 외쳤다.

“아니오! 나는 맹세를 지켰소.”

“도난에게 그렇게 말해라.” 머리 중 하나가 조롱했다. “네가 그를 저버리지 않았더냐?”

“네이렐이나 티리엘에게도 그렇게 말해 보라.” 또 다른 머리가 조롱했다. 그리고 머리들은 계속해서 눈을 뜨고 입을 벌려 스산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들은 그의 실패를 멸시하고, 그 횡수를 세고,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상기시켰다. 그의 오만과 자만심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 그를 믿었다가 위험에 빠져 파멸에 이른 사람들.

뒤쪽에서 장막에 가려진 생물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저버린 사람들의 분노가 발현된 존재였을까? 그가 유발한 수많은 죽음의 그림자였을까? 그가 남겨 놓은 사람들? 그가 망쳐 버린 삶?

어떻게 그런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로라스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느꼈다. 그는 행동의 결과와 다가오는 확정된 파멸 사이에 붙잡혔다.



그런데도 그는 명든 영혼 안에서 한 조각 용기를 찾아냈다. “아니오” 그는 머리들과 유령을 향해 거칠게 포효했다. “내가 어둠에 맞섰다고 이야기했잖소...”

“엘리아스에게 그렇게 말해 봐라.” 또 다른 머리가 비웃듯 말했다. 로라스는 그 머리를 보았고, 공포스럽게도 그건 다른 아닌 엘리아스였다. 그의 머리에는 피투성이로 찢겨진 목덜미가 남아 있었다. 엘리아스의 두 눈에는 그를 비난하는 빛이 뜨겁게 타올랐다.

“다들 들어 주시오.” 로라스가 애원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포들이 모두 그를 향해 고통을 지르며, 똑같이 씩씩한 비난을 퍼부었다. “네이켈에게도 그렇게 말해!”

“아니, 아니오오오!” 로라스는 비명을 지르며 그들에게 입을 다물라고, 얘기를 들어 보라고 했다.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머리들이 입을 다물었지만, 엘리아스의 눈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오... 걱정하지 마라, 로라스. 조만간 네 선택이 널 따라잡을 것이다.”

“안 돼, 제발...”

“너도 곧 여기로 오게 될 거야.”

“이 세계에 남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럴 순 없어.”

“여기서 나와 함께... 우리 모두와 함께...”

“아니, 아니야, 안 돼!”

“이제 곧.” 엘리아스가 속삭였다. “금방이다... 잘 봐라...”

가슴 속에서 공포가 차올랐지만, 로라스는 바라봤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그는 바라봤다. 거기, 모든 머리들 아래에 있는 가지에서, 로라스는 차가운 바람 속에 흔들리는 가장 끔찍한 과실을 보았다.

자신의 머리가 거기 있었다. 턱이 축 늘어지고, 피부는 창백한 잿빛에 두 눈에는 절대적인 실패의 공포가 가득했다. 로라스가 고개를 돌리자 복수의 영혼이 두 팔을 들고 폭발하여, 밤처럼 검은 까마귀 무리로 찢어졌다. 그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그를 때리고, 그를 무릎 꿇렸다.



로라스는 비명을 지르며 그 끔찍한 장소를 벗어났다.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어둠의 세계를 가로질렀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지금껏 누워 있던 음울하고 초라한 여관의 침대 위로 돌아왔다.

고개를 돌리자 창틀에 까마귀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검은색 속에 검은색만 보이는 그 새의 두 눈에선 차가운 불이 타오르는 것만 같았다.

로라스는 베개 밑에 두었던 칼을 꺼내 그 생물을 향해 달려들었고, 강한 증오와 공포로 휘두른 칼은 날이 7센티미터 가량 창틀에 박혀 버렸다.

하지만 새는 그대로 밤을 향해 날아갔다.

그는 풀썩 주저앉았고, 한밤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까마귀가 까악거리는 소리는 마치 그를 조롱하는 웃음 같았다. 지옥이 손짓이라도 한 듯, 로라스에게 뜨거운 불길의 열기와 유향의 악취가 느껴졌다.



그래, 이제 보았느냐.

그 어떤 학자도, 여왕도, 전사도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지 않다. 지식의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자는 없다.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 행한 일들에 쫓긴다. 모든 선택이 우리를 각자의 길로 내몰았다. 아무리 정의로움을 확신하더라도 모든 선택은 마치 칼처럼 자신을 벤다. 그런 상처를 통해 우리의 희망과 순수함은 빠져나간다. 상처가 날 때마다 우리는 육신과 피에 타락을 불러들인다.

하지만...

어떤 정신은 잘 타락하지 않는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누가 판단할 수 있을까?

나는 나 자신의 꿈으로부터... 나의 악몽으로부터 깨어난다. 공포를 외면하려 눈을 돌리더라도, 나는 여전히 볼 수 있다. 여전히 알 수 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이 흐른다.

“무언가 오고 있다.” 나는 말한다. 그리고 바깥의 숲에서 일천 마리 밤의 새가 공포로 울부짖는다. “무언가 끔찍한 것이... 오고 있다...”

A large, gnarled, leafless tree with a full moon in the background. The tree is dark and has many small, dark fruits hanging from its branches. The moon is a large, bright, yellowish-white circle. The background is a dark, misty landscape with some foliage in the foreground.

저자 약력

JONATHAN MABERRY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브램 스토커 상 5회, 스크라이브 상 4회, 잉크팟 상 1회 수상자로, 50편이 넘는 장편 소설을 쓰고 30편이 넘는 작품집을 편집한 바 있다. 그는 또한 코믹북 작가, 시인, 최고 프로듀서, 글쓰기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그의 *V-Wars*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제작되었고, *Rot & Ruin* 은 알콘 엔터테인먼트에서 영화로 제작 중이며, *Joe Ledger* 스릴러는 *John Wick* 영화의 감독인 Chad Stahelski가 TV 시리즈로 제작 중이다. 그는 공포, SF, 판타지, 모험, 스릴러 등 다양한 작품을 저술하며, 국제 미디어 타이 인 작가 협회의 회장이자, 워워드 테일스 잡지의 편집자이기도 하다. Jonathanmaberry.com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